보 도 설 명 자 료
('20. 2. 17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'19년 기준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국산 모듈 점유율은 78.7%로 국내시장 주도 중 (서울경제 2.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◇ '19년 기준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**국산 모듈 점유율은 78.7%로 국내 시장을 주도 중**이며, 이에 따라 **우리 태양광 제조업계의 국내 매출**은 '18년 2.11조원으로 **전년 대비 7.3% 증가함**

◇ 최근 태양광 폴리실리콘 산업계의 어려움은 **지속되는 글로벌 공급과잉 및 가격하락**에 따른 것으로 **전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의 일환**

◇ 국내 태양광 생태계는 고부가가치 분야인 **셀·모듈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성장**하고 있고, **고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도 지속 중**

◇ 2.17일 서울경제 <韓, 신재생에너지 드라이브 中 태양광업체만 배불렸네>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기사내용

□ 정부가 **태양광 발전을 장려**하면서 **신재생에너지에 드라이브**를 거는 동안 **그 혜택은 중국 모듈업체들이 독차지**

○ 중국산 태양광 모듈 수입액은 지난해 3억 6,752만 달러로 지난 '18년 2억 1,951만 달러에 비해 67.4% 증가

○ 폴리실리콘에서 잉곳·웨이퍼, 셀·모듈로 이어지는 국내 태양광 생태계는 사실상 무너짐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**'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장려하면서, 그 혜택은 중국 모듈업체들이 독차지 하였다'**는 보도내용은 **사실이 아님**

○ '19년 기준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**국산 모듈 점유율은 전년 대비 6.2%p 상승한 78.7%로 국내 시장을 주도 중**이며, **중국산 모듈의 점유율은 하락하는 추세**임

* 모듈 국산제품 사용비중 : ('16) 72.0% → ('17) 73.5% → ('18) 72.5% → ('19) 78.7%
* 모듈 중국산 제품 사용비중 : ('16) 28.0% → ('17) 26.5% → ('18) 27.5% → ('19) 21.3%

○ 이에 따라, 우리 태양광 제조업계의 국내 매출은 **'18년 2.11조원**으로 전년 대비('17년 1.97조원) **7.3% 증가함**

○ 또한, **태양광 건설·시공 분야**에서도 국내 업체들의 매출은 약 **2.02조원**(잠정)으로 전년 대비('17년 1.53조원) **32.4% 증가함**

□ 최근 폴리실리콘 등 태양광 소재업계의 어려움은 **지속되는 글로벌 공급과잉 및 가격하락**에 따른 것으로 **국내 뿐만이 아닌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의 일환**

* 세계 폴리실리콘 기업 수 : ('18) 32개 → ('19) 19개
세계 잉곳·웨이퍼 기업 수 : ('18) 125개 → ('19) 77개

□ 다만, **태양광 밸류체인별 국내 업체간 연계**는 **사실상 낮은 수준**으로, OCI가 **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**하더라도 **국내 태양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**임

* 현재 OCI가 생산한 폴리실리콘 대부분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으며, 국내 웨이퍼 생산업체는 폴리실리콘을 독일에서 대부분 수입하고 있음

○ 국내 태양광 생태계는 고부가가치 분야인 셀·모듈 중심으로 **안정적으로 성장**하고 있고, **고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도 지속 중**

* 셀 수출(17년 1.0억불 → 19년 3.6억불) / 패널 국산비중(17년 73.5% → 19년 78.7%)
* 페로브스카이트 전지 개발을 통한 세계최고 효율 25.2% 달성('19.8월)

※ 문의 : 재생에너지산업과 오승철 과장(044-203-5370) / 최재홍 사무관(5373)